

장백산천지

제11호

2006년 12월 15일 금요일

《령혼》은 존재하는가?

유물론자들은 《령혼》은 없다고 인정한다. 《령혼》은 볼수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인류의 감각기관은 제한되어 있고 현대과학발전수준이 높지 못하므로 문자로 구성된 우리의 눈과 의기로 문자보다 더 작은 립자로 구성된 《령혼》을 직접 볼수 없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탐구하여 《령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아래에 《령혼》이 존재함을 탐색해낸 성공적인 과학실험 두가지 사례를 들고자 한다.

1. 세계상에서 제일 처음 《령혼》 존재를 증명한 과학실험

잉글랜드의 의사 파넬은 200 여명 환자를 상대로 연구했는데 그중 7명이 구급 되여 깨여났다. 그들은 《령혼》이 몸에서 떠날 때 자신과 자신을 구급하고 있는 의사의 모습에 대해, 그리고 수술실 천정의 등불 특히는 천정에 몰래 달아놓은 《작은 물건》에 대해 전부 알아 맞추었다. 파넬은 이 성공적인 실험을 통해 《령혼》은 객관존재이며 일정한 크기도 있고 공중에 떨 수도 있는 사람 생명의 다른 일종 형식이며 허무맹탕한 환상도 아니라는 것을 실증했다. 수련계에서 《령혼》을 원신이라고 하며 원신은 사람의 다른 공간에서의 신체이고 원신은 불멸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미신이 아니다.

2. 《령혼》이 존재함을 입증한 최신과학실험

일본 도쿄에서 《알파 3 호》라는 과학실험을 했다. 과학자들은 지원자 (사망직전의 위급 환자임)

사부의 은혜를 회고하며 (현재)

3. 병치료

◆ 1993년 6월, 장춘제 6기 학습반이 사작되기 전날 사부께서는 친히 저희집에 오셔서 심장막이 탈락된 녀동생의 몸을 정리해 주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심장막이 보완 되였고 모두 정상이였다. 병원에서 심장막을 바꾸는데 10여 만원 들어야 하는데 사부께서 병을 고쳐주었으니 어찌 감탄하지 않겠는가? 이튿날, 저의 녀동생은 절로 걸어서 학습반에 참가했다.

--- 한 동북대법제자의 글에서 발췌

◆ 장춘 제 4기 학습반에서 사부께서는 한 수련생의 배속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그의 몸을 청리하였다. 그 당시 나쁜 피가 바지에서 흘러내렸고 배가 줄어들어 허리춤이 헐렁해졌다. 병원에 가서 검진해보니 종양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 한 장춘 대법제자의 글에서 발췌

◆ 연길 전수반에 참가한 한 학원이 있었는데 그의 몸에 부체가 들러붙어 있어 병치료를 해주다가 그만 말문이 막혀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사부님을 보자 손을 당기며 놓지 않고 다른 손으로 입을 가리켰다. 사부께서는 몇다디 말씀하고 나서 그를 보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과연 그는 당장에서 말 할 수 있었다.

--- 한 할빈 대법제자의 글에서 발췌

◆ 1994년 제남 제 2기 학습반의 첫날, 저의 앞 인행도에 3살쯤 되는 식물인이 된 애가 누워 있었다. 이튿날도 그애는 누워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그 애는 인행도에서 풍풍 뛰어 놀고 있었다. 이광경을 본 학원들은 법륜공의 신비함을 절실히 느꼈다.

--- 한 대만 대법제자의 글에서 발췌
다음호에 계속

의 두개골에 전극을 연결시킨 후 컴퓨터에 연결시켜 놓았다. 컴퓨터는 80km 범위 내에서 지원자들의 뇌전파를 받을 수 있었고 60초 내에 뇌전파가 번역되어 컴퓨터 현광막에 나타날 수 있게 하였다. 《알파 3 호》 실험과정에서 지원자들은 선후로 인간세상을 떠났다. 그중 퍼디라고 부르는 지원자가 세상뜬 3일 후에 컴퓨터현광막에 정보가 나타났다. 《난 퍼디요.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소. 난 기쁘고 고통이 없소… 고통이 없소… 고통이 없소…》라는 이 몇 구절은 20여 차례나 중복된 후 정보가 중단 되였다. 그 후 23세의 백혈병환자가 불행히 사망된 이튿날 컴퓨터로 그의 정보를 받았다. 《여기는 아름다운 곳이요. 난 매우 기쁘게 여기에 왔소. 여기엔 해빛이 총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소. 난 그들을 매우 사랑하오. 난 앞으로…》라고 한 후 정보는 끊어졌다.

《알파 3 호》 실험에 참가한 과학자들은 여기서 전달된 생명의 정보반영 결과가 비슷한 것은 《령혼》이 존재한다는 유력한 근거라고 일제히 인정하고 있다. 중국 천진에서 처음으로 《죽음에 린접한 체험》을 연구하고 있지만 중공의 정치의식형태의 통제로 외국보다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

대만에서 대시위행진 하며 3 퇴대조류를 성원

2006년 12월 2일 점심때, 대만 각 지역과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온 7천여명 법륜공 수련생들이 대북현 판교체육장에 모여 대시위행진 하였고 3 가지 탈퇴대조류를 성원 하였다. 현재 1600여만명의 중국인들이 당원, 단원, 소선대에서 퇴출 하였다.



당강산이 3 살나던 해, 아버지께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예요. 전세에 저의 이름은 진병도이고 아버지를 《셋째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저의 집은 담주 해변가에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당강산이 6 살나던 해, 아버지는 당강산의 독촉에 못이겨 그를 데리고 담주시 신영진 황옥촌에 살고 있는 《셋째 아버지》집으로 찾아갔다.

연변 박해진상

박해를 이겨낸 쌍둥이 자매

길림성 연길시에 한 쌍둥이 꼬마자매가 살고 있는데 언니는 류문문이고 동생은 류로로이다. 그들은 열살 넘어서부터 《진、선、인》을 가슴에 품고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1999년 7월 20일 강택민을 수반으로 한 중공은 법륜공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그해, 14 살난 문문과 로로는 여러차례 북경에 가서 상방했다. 학교에서는 상방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퇴학시켰다. 2001년 1월, 그들은 또 북경에 상방 갔다가 체포되어 연길시 소영파출소로 압송되었다. 악경들은 그들을 호되게 때리면서 심문했다. 15일 만기 되자 악인들은 아무 리유도 없이 그들을 불법적으로 15일 더 연기시켰다. 2002년 3월, 소영파출소 악경들은 그들을 연길시 당원 학교 세뇌반에 참가시켰다. 후에 석현세뇌반으로 옮겨갔다. 세뇌기간에 사악들은 《전화》를 거부했다고 그들을 연길시 구류소에 한달 가두어 놓았다.

악인들은 미성년인 그들을 불법적으로 1년 판결을 내려 장춘 흑취자녀자로개소 6 대대에 보내여 박해를 감행했다. 악경들은 법륜공을 비방하는 조문을 읽지 않는다고 그들을 마구 때렸다. 문문은 맞아서 온몸이 떨리고 심장병위험이 나타나 부득불 구급주사를 맞고 구조해냈다. 로로가 단식을 하자 악경 손명연은 전기동등이로 머리와 얼굴,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찜질했다.

2004년 10월말, 문문은 시장에 가서 진상을 알리다가 악인들의 고발로 서시장파출소 악경들에게 체포되어 연길시구류소에 갇혔다. 한달반 동안 구류하고 나서 또다시 1년 반판결을 받고 흑취자녀자로개소로 압송되었다. 악경들은 그를 《전화》시키기 위해 일주일동안 밤낮 잠자지 못하게 했다. 문문이가 법륜공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악경 후지홍은 전기동등이로 그의 머리와 얼굴을 찜질했고 《비행기앉기》를 시켰고 잘하지 못하면 마구 때려서 얼굴신경까지 마비되었다. 그는 나중에 심장이 아프고 맥박이 너무 빨리 뛰는 증상이 나타나 몸은 늘 괴로웠다. 7년 동안 중공의 박해를 이겨온 쌍둥이 자매의 행동은 사악들에게 수련인의 굳은 신념을 보여주었다.

연변 박해소식

사악한 연변주 6.10 사무실에서 최근에 전주의 당정기관, 기업사업단위, 학교, 사회구역, 가두, 촌민위원회, 거민위원회등 조직에서 대규모의 조사를 벌려 법륜공학원들의 활동정황을 써서 상급에 바쳐야 한다는 비밀지시를 하달 했다.

전세를 기억하고 있는 어린이

당강산은 《셋째아버지》와 두 누님, 두 녀 동생 심지어 전세때 녀친구까지 대뜸 알아보았다. 당강산의 전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셋째 아버지》는 자기 아들 진병도가 환생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부등켜안고 목놓아 울었다. 그날부터 당강산은 아들자식이 없는 《셋째아버지》의 아들이 되여서 《셋째 아버지》가 세상 뜰 때까지 효도했다.

외국법륜공수련생들이 천안문에서 《소란》을 한 것이 시위법을 위반 했는가?

2001년 11월 20일,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 인도네시아, 스페인, 아일랜드, 이스라엘, 스위스, 스웨덴, 미국 등 12개 나라 30여명 법륜공수련생들이 천안문광장에 와서 《진, 선, 인》, 《법륜대법은 좋다》라고 쓴 프랭카트를 펼쳐들고 중국정부와 세계인민들에게 법륜공박해진상을 알렸다. 겁에 질린 중공은 경찰을 동원하여 《소란을 피워댔다》, 《시위법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그들을 무지하게 체포했다. 그들은 법륜공수련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의를 알았고 언제나 마음속에 《진, 선, 인》을 간직하고 모든 악습을 버리면서 《좋은 사람》이 되였다. 중공은 매체를 통해 요언을 날조했고 법륜공을 비방하고 공격했으며 수천수만의 법륜공제자들은 감옥과 간수소에 갇히여 혹형을 당했고 수천명이 박해를 받아 죽었다. 그들은 법륜공박해진상을 세상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위대한 법륜대법의 발원지인 중국으로 왔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진, 선, 인》프랭카트를 펼쳐들었을 뿐 중국정부와 중공을 반대하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소란을 피워댔다》, 《시위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는가?

어느 나라든지 시위행진에 대한 규정이 있다. 문명한 나라에서는 인민의 언론자유에 대해 최대의 보장을 받고 있다. 정부와 경찰측에서는 시위행진을 거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를 유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중공의 시위법은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것인바 누가 시위행진을 신청했다면 감옥으로 들어가는 문표를 신청하는 것과 같다.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여, 우리는 언론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짓밟고 있는 중공의 만행을 폭로하고 비판하자!

격언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아침에 생겼다가 저녁에 죽는다. 만일 하루살이에게 일년에는 춘하추동이 있고 4계절이 반복 된다고 알려주면 그는 전혀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놓고 말한다면 그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인생은 백년 안되지만 고대 문화, 사전문화, 예언들은 사람들에게 《세월은 류수같이 흘러가고 인생은 여러 곳을 거쳐 룬회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고 계시해 주고 있다.